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





글 | 허 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 머리말

어릴 적 서커스 구경을 하던 생각을 떠올려보면, 아리따운 소녀가 우산을 들고 외줄을 타던 모습이 떠오른다. 저 소녀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며 가슴 졸이며 보던 그때 그 모습. 그러나 그 꼭예소녀는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밑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생명의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꼭예보행을 하고 있다. 연습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밑에 안전장치도 없이 말이다. 우리 자녀가 지금 하루에 도로를 몇 번이나 건너고 있는가? 하루에 10번을 건넌다면 우리 자녀에게 날마다 10번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즉시, 우리 아이들이 도로를 어떻게 건너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준비하게 달려 있는 차도에 덜컥 내려서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손살같이 뛰어간다. 그러면 간발의 차이로 자동차가 “썹”하고 지나갈 것이다. 만일 우리 아이가 달리기틀 조금 못했거나 주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뛰어들었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자녀를 발견 못했거나, 보다 과속으로 달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왜 우리 귀여운 자녀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코앞까지 와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왜 이렇게 둔감한가?

2.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지난 200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3백37명 중 72%가 도로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만 확실하게 알려 준다면, 어린이 사망자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단순 결론이 도출된다. 다른 어린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7백56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교통사고가 3백37명(44.6%)으로 가장 높고, 물놀이 사고 1백56명 (20.6%), 질식 72명 (9.5%), 추락 67명 (8.9%), 화상 25명 (3.3%), 중독 4명 (0.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상의 사고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만 꾸준히 실시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현황

구분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추락	침식	화상	중독	기타
2005	337	156	67	72	25	4	95
2004	374	183	88	90	46	7	103
2003	497	156	108	96	70	4	85
2002	594	198	134	114	55	6	109
2001	616	236	138	102	76	7	94

〈출처 : 2006년 통계청〉

가. 교통사고 예방법

(1) 횡단보도 이용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무단횡단 사고이므로, 우리 자녀에게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 준 다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우측으로 간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보다 안전하다. 비록 횡단보도의 반쯤 지나서 차와 거리가 가까워도 이미 차가 멈추어 있고 보행자가 차를 보면서 건너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줄어든다.

(2) 손 들기

손을 드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추어 주세요.”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손은 차에 가까운 쪽 손, 즉 처음에 왼손을 반쯤 지나 우측 손을 들어준다. 이때 손은 하늘높이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보며 45° 각도로 든다.

(3) 차량 멈춤 확인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와도,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반드시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실시하여 그 차가 멈추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한다. 즉,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한 다음 차를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러주면 얼마든지 도로횡단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나. 물놀이사고 예방법

(1) 수영장에서 주의할 사항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손과 발을 조심해야 하며 수심이 얇은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수영장 바닥은 미끄럽기 때문에 뛰어서 다니지 않으며 난간에 서있는 친구를 뒤에서 갑자기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한다. 준비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으므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2) 바닷가에서 주의할 사항

바닷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으니 얇은 데서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또한, 모래 바닥에 깨진 병, 유리조각이 있을 수 있어 발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꼭 신발을 신으며, 물놀이를 할 때에 음식을 먹으면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을 먹은 후 곧바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먼 바다에서 혼자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강이나 계곡에서 주의할 사항

강은 수심이 얇아도 물살이 셀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물놀이를 해야 하며, 계곡은 돌과 바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물망으로 고기 잡는 데에 열중하다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외딴 곳에서 혼자 놀지 않아야 한다. 계곡 바로 옆에 텐트를 치면 밤에 어두울 때에나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 질식사 예방법

(1)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는다

폭신한 이부자리나 베개를 받쳐주면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옆으로, 견고한 침대에 눕힌다.

(2) 잠자리에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

모유 수유 중 엄마가 잠이 들게 되면,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해 엎어지거나 엄마의 몸에 깔려 질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침대에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부득이 침대에서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관찰 하에 하도록 한다.

(3) 성인용 침대에서 아기를 재우지 않는다

아기가 성인 또는 몸집 큰 아이에게 깔리거나, 침대의 구석으로 밀려 질식사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는 성인용 침대 위에서 재워서는 안 되며, 성인이나 큰 아이와 함께 잠들게 해서도 안 된다.

(4) 위험한 공간을 없앤다

어린이는 잠을 자다가 몸을 움직여 침대와 벽면 사이,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몸이 끼어 질식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또 침대 난간에 몸이 빠지고 머리가 걸려 질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침대와 벽면 사이,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의 공간을 없애고 딱딱한 매트리스를 깔아 가장자리가 접히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난간이 촘촘한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



(5) 음식물에 의한 질식을 주의한다

젤리, 삼겹살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음식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적당량을 입에 넣어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가 먹는 동안 항상 관찰하고 누워있을 때 음식을 먹이지 않으며, 음식물이 아기의 입안에 있을 때에는 놀라게 해서 안 된다.

라. 낙상사고 예방법

- (1) 아파트 등 높은 층에 사는 어린이들은 창문에 안전바가 있는지,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 높이가 낮지는 않은지 등 우리 집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 부모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부모들 역시 이에 대한 세미한 주의가 요구된다.
- (2)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거나 또는 친구를 부르거나 친구와 장난치는 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아파트 베란다 주변에 의자나 책상 등이 있어 어린 동생이 이를 밟고 아래를 보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자와 책상은 멀리 치우도록 한다.
- (4) 놀이터에서도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지 않으며 친구와 서로 미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5)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뛰지 않으며, 손을 주머니 속에 넣으면 넘어질 경우 머리가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지 않는다.

마. 화재사고 예방법

- (1) 전기코드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가 꼽혀 있으면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으므로 3개 이상 꼽지 않도록 하고 평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는 등, 내가 먼저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 (2)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익힌 후 자녀들 혹은 부모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소화기 안전편을 뽑은 후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잡이를 꼭 잡고 빗자루로 쓸듯 소화약제를 뿌린다.)
- (3)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며, 엘리베이터는 화재로 인해 멈출 수 있으므로 비상구와 계단을 찾아 빠르게 대피한다.
- (4) 119에 신고할 경우 전화로 어린이 이름과 불이 난 곳의 주소, 특히 눈에 띄는 주변의 건물과 화재 원인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평소에 신고방법을 연습해 본다.
- (5) 대피 시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자세로 엎드려 이동한다. 불이 옷에 붙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멈추고 엎드린 후에 몸을 구르면서 불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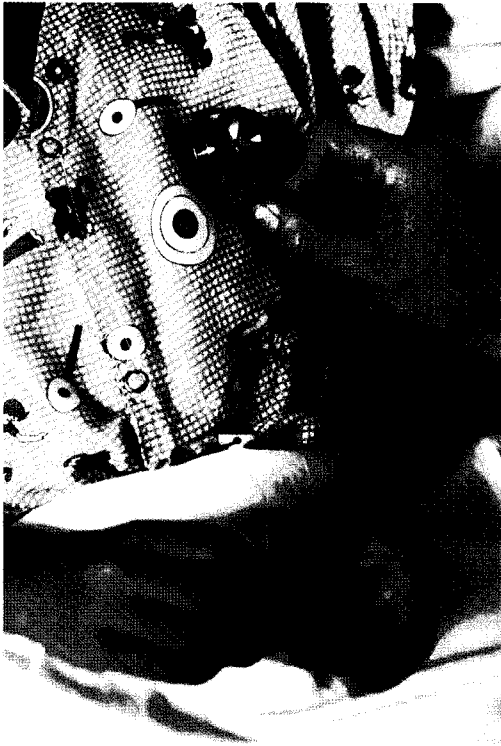
바. 가정 안전사고 예방법

- (1) 항상 아이와 부모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와 위치에서 부모가 수시로 아이의 행동을 확인한다.
- (2) 집안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둔다.
- (3) 구급상자를 상비해 정기적으로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둔다.
- (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처를 전화기 옆에 써 둔다.
- (5) 정기적으로 가정 안전 위험요소를 가족이 함께 모여 점검한다.

3. 맺음말

“생명을 담보로 한 스릴을 즐기려면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해라”.

이 말은 몇 해 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주간지인 타임지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접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설마...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라며 애써 무시해 버리려고 했을 것이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의 운전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으면 이런 글이 실리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6년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무려 1백30만 명을 넘는다. 이 1백30만 명을 남한 전체의 인구로 나누어 보면,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1년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창 재물을 떨며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가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무려 3%, 즉 100명 중의 세 명 꼴로 나타난다.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하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 이런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자녀”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가 어느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영영 볼 수 없거나 부상당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생각하기조차 싫다.”,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게 되면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무엇인가 절실히 원하고 바라다면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의 안전문제는 ‘설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며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우리 자신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오늘 한국의 안전사고 문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무서운 안전사고가 나 자신,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녀의 코 앞에까지 다가와 있다.”는 생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습득한 후 자녀에게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 ☺